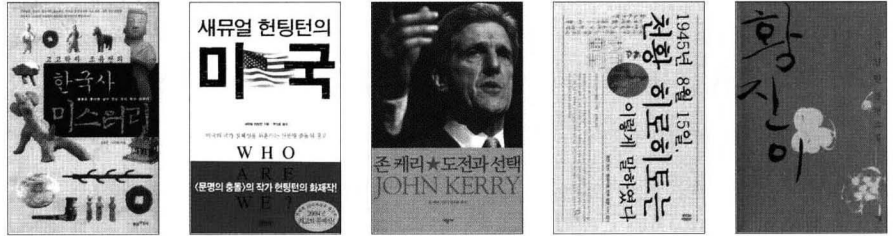


문자와 전자, 고금의 서정 아우른 스펙트럼

‘미국’, ‘전자문화’, ‘사랑의 철학’ 이 화두



7월 15일~8월 15일. 지난 한 달 간 언론이 주목한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문분야 가운데 황금부엉이에서 나온 《고고학자 조유진의 한국사 미스터리》(조유진·이기환 지음)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책은 무령왕릉, 안압지, 황룡사지, 감은사지, 황남대총, 천마총 같이 한국사의 베일을 벗기는 주요 발굴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발굴 순간과 뒷이야기, 그리고 논쟁 거리를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책은 희대의 발굴이자 최악의 발굴이 됐던 무령왕릉, 발굴단의 얼굴까지 붉어지게 했던 안압지의 남근 형상 유물, 일본식 무덤의 수수께끼를 남긴 장고형 고분 등 다양한 발굴현장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문자제국 쇠망약사》,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등 각광

문학평론가 이남호 씨가 펴낸 《문자제국 쇠망약사》(생각의나무)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영상과 전자매체의 범람 속에서 갈수록 위축되고 소외되는 문자문화의 운명에 바치는 애가哀歌와도 같습니다. 저자는 '전자시대의 예언자' 마셜 맥루한의 미디어 이론을 나침반 삼아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면서, 그 도도한 물결 앞에서 문자문화와 문학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니 살아남는 게 과연 가능이나 한지에 대해 음울하지만 끈질긴 모색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김영사에서 나온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새뮤얼 헌팅턴 지음, 형선호 옮김)도 많은 지면을 차지했습니다. 이 책은 《문명의 충돌》의 저자 새뮤얼 헌팅턴이 지난해 4월 발표해 거센 반론과 논쟁을 일으켰던 화제작입니다. 저자는 그간의 저서에서 주제로 삼았던 국제문제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미국 내 인종적, 문화적 갈등을 보수적인 시각으로 다뤘습니다. 책은 앵글로-색슨계의 미국이 이민자인 히스패닉계로 인해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미국이 나아가갈 길로 범세계주의, 제국주의, 국가주의 등 3가지로 나눴습니다. 또한 미국이 국가정체성과 목적을 찾는 중심에 주류문화인 앵글로·색슨 문화와 개신교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대통령 후보 존 케리에 관한 책 3권 주목

미국 대통령선거의 두 경쟁자 가운데 한 명인 민주당의 존 케리 후보에 대한 책 3권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책은 시공사에서 펴낸 《존 케리 도전과 선택》(존 케리 지음, 정하용 옮김)입니다. 이 책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출간된 《A Call to Service》를 번역한 책입니다. 자신을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고 밝힌 케리는 "기독교적 편견과 차별은 신의 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신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21세기에는 진보적 국제주의의 대담한 비전을 되살려야 한다"며 부시 행정부와 차별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국내 일간지 국제부 기자인 고승욱, 하윤해 씨가 함께 쓴 《존 케리》(위드북스)입니다. 이 책은 국내 언론의 시각으로 존 케리를 들여다보는 책입니다. '케리'를 키워드로 베트남 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 미국 진보정치 역

사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올해 미국 대선의 쟁점과 의미까지 두루 짚은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지식의날개에서 나온 《보스턴 글로브 기자들이 본 존 F. 케리》입니다. 저자들은 아일랜드계로 추정되던 케리가 실은 체코계 유대인의 후예였다는 케리 자신도 모르는 사실까지 밝혀냈을 정도로,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보듯 꼼꼼하게 케리라는 인물의 다양한 부분을 해부합니다.

이웃나라 미국과 일본 다시보는 책들도

김영사에서 펴낸 이원복 교수의 《먼나라 이웃나라-미국편》(이원복 지음)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책은 20년 가까이 1,000만 부가 넘게 팔린 이원복 교수의 스테디셀러 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시리즈'의 '완결편'입니다. 책은 모두 3권으로, 1권 '미국인' 과 2권 '역사' 3권 '대통령'으로 구성됐습니다. 3권은 연말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8·15광복절을 맞아 뿌리와이파리에서 출간된 《1945년 8월 15일 천황 히로히토는 이렇게 말하였다》(고모리 요이치 지음, 송태욱 옮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책은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라디오를 통해 발표한 '종전 조서', 그 800자 안에 숨겨진 의미를 해독해 '전후 일본 다시 읽기'를 시도하고 있는 책입니다. 같은 출판사의 《악마의 눈물, 석유의 역사》(권터 바루디오 지음, 최은아 외 옮김)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석유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룬 책입니다. 책은 석유의 채굴과 생산, 석유화학 기술의 진보와 석유의 발전사, 그리고 석유에 관련된 국제 정치적 맥락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석유의 만남을 에피소드로 묶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진이 생애 스토리와 체호프가 교차한 소설 시장

소설분야 가운데는 조선의 시인이자 명기 '황진이'의 일대기를 다룬 장편소설 《황진이》(이름)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유교적 사회인습을 단숨에 뛰어넘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본질적 자유혼의 삶을 살다간 황진이의 생애를 그린 작품입니다. 여성 존재의 심연을 깊이 있게 다뤄 온 작가 전경린은 남성들에 대적할 만한 황진이의 담대한 인격과 신비로운 운명, 미적 권력을 매혹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현대문학의 초석을 놓은 러시아의 작가 '안톤 빠블로비치 체호프'의 단편 모음집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과 희곡 모음집 《벗꽃동산》(열린책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체호프 타계 1백 주기를 맞아, 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주요 작품들을 선집으로 묶었습니다. 거창한 사상이 아닌 삶의 사소함에 주목하는 체호프의 작품은 인생의 고달픔과 수수께끼를 누구보다도 원숙하고 차분한 어조로 들려줍니다. 또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 옆에 나란히 자연을 묘사하면서, 작은 것들이 빚어내는 삶의 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이골 외딴집'과 아레베 이야기, 사랑에 대한 철학적 사유 《사랑, 그 환상의 물매》

산문분야 가운데는 전깃불 대신 촛불을, 전화 대신 편지를, 학교 대신 자연을 택하면서 더 행복해진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선이골 외딴집 일곱식구 이야기》(산티)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책은 강원도 화천군 선이골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철 따라 진술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전깃불도 우체부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7년 간 농사를 짓고, 동식물과 어우러져 살아온 그들의 이야기는 문명의 이기를 떠난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아동분야 가운데는 베를린에서 펴낸 《커다란 질문》(볼프 에를브루흐 글 그림, 김하연 옮김)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올해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 라가치상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 세상에 있을까'라는 철학적 질문에 다양한 사람과 동물이 대답을 합니다. '커다란 질문'에 대한 각각 다른 답은 아이들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올림픽에 맞춰 아이세움에서 출간된 《세계 최대의 축제 올림픽이야기》(클라이브 기퍼드 지음, 장석봉 옮김)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림픽 각 경기의 특징과 규칙을 그림으로 설명했으며,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선수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 금메달을 놓고 벌어지는 선수들의 경쟁과 우정을 생생한 사진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영민 교수가 '사랑'을 주제로 쓴 85편의 전작 철학에세이 《사랑, 그 환상의 물매》(마음산책)입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철학에세이집이라는 바탕도 독특하며, '우리 시대의 새로운 사랑법'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저자의 사유도 흥미롭습니다. 사랑에 대한 진중한 성찰과 담론 없는 오늘, 저자는 사랑에 관한 여든다섯 가지 철학적 사유를 사려 깊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인**

박용두 기자 (자료·북피알미디어)